

충남교육청, 3월 2일자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

3급 1명, 4급 1명 총 2명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 2일자 인사를 통해 간부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현섭(사진) 학생 교육문화원장을 부이사관으로, 주동수 민원팀장을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은 1983년 공직에 입문해 2011년 지방교육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도교육청 공보담당,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연구정보원 정보운영과장

등 다양한 기관 보직을 거쳤다. 이후 201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정책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을 마치고 재무과장을 역임했다.

이현섭 부이사관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충남교육의 현안 해결과 주요 정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철 교육감은 “신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그동안의 축적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교서 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제33대 주진의 교육장 취임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홍성교육 만들어 나갈 것

홍성교육지원청은 제33대 주진의 교육장이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주진의 교육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광천상고를 시작으로 금마중학교 교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정을 거쳐 홍성교육지원청 33대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주진의 교육장은 홍성지역에서 오랜 교직생활을 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는 평이다. 34년간의 교직경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춰 충남교육계에서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홍주의사총을 방문해 호국영역에 대한 참배로 첫 업무를 시작한 주진의 교육장은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역사와 미래, 성장과 행복이 함께하는 어깨동무 홍성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홍성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홍성



교육 비전 제시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 ▲학교지원 협의회를 통한 학교업무 최적화 실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홍성교육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주진의 교육장은 “학생을 교복입은 시민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장 받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홍성교육이 그 밑바탕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성진 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제35대 이경범 교육장 취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35대 교육장에 이경범 교육장이 3월 1일 자로 취임했다.

이경범 교육장은 신설학교 등교 맞이, 현종사 참배로 충무공의 업을 가슴에 새기며 본격적인 아산교육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경범 아산교육장은 공주사범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산교육지원청, 충무교육원, 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천안불당중학교 교감을 거쳐 신암중학교, 천안쌍용중학교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육장에 취임하기 전 3년간은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며 충남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경범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산 교육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며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궁극의 답을 찾아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모두에게 희망주는 행복한 아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 가지 강조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아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가지 강조사항은 첫째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더불어 학습, 돌봄, 방역, 안전을 책임지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둘째 독서에 기반 한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여 아산 학생들의 창학력 강화,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아산 지역의 미래교육 기반 마련, 넷째 집단 사고와 협의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아산교육 실



현이다.

이경범 교육장은 “우리 앞에는 켜켜이 쌓인 현안문제가 많지만 서로에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아산의 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준비하며 우리 아산교육 가족과 함께 헌찬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성천 기자

제28대 조경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행복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옥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28대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조경애 교육장(만57세)이 2일에 취임했다.

조경애 교육장은 “행복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옥천교육”의 슬로건에 걸맞게 옥천교육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공동체적 형성에 앞장서는 교육지원청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역동적인 사회변화 속 새로운 교육과제를 마주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직원들 모두가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사



교육지원청 제28대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이기국 기자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제11대 김영숙 원장 취임

소통과 협력 통한 일선학교 맞춤 지원 소감 밝혀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은 제11대 원장으로 김영숙 전 교원인사과장이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숙 원장은 1986년 교직 생활을 시작으로 예산교육지원청·충남교육청 장학사, 신례원초 교감, 조림초 교장, 태안교육지원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관에 이어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역임하는 등 일선학교와 교육청을 거쳐 온화하고

탁월한 소통행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아 왔다.

김 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육행정의 핵심을 학교 교실 지원에 두면서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정연주 기자



청양교육지원청, 제33대 박동인 교육장 취임



청양교육지원청은 제33대 박동인 신임 교육장(전 충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취임 첫날인 2일, 청양군 현충시설인 충령사를 방문해 참배한 후, 오전 10시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동인 교육장은 공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영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서산 음암초 교감,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천안신용초·한서초 교장,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청남도교육청 행복교

육팀장, 초등인사팀장,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풍부한 학교경험과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청양교육 실현을 위해 수평적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임사에서 박동인 교육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현장과 소통·협력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교육을 실현하고자 유관 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 ▲교육(수업)회복으로 기초학력 완성 ▲푸른빛고을 책 읽는 마을 ▲미래교육을 이끄는 작은학교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육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듯 푸른빛고을 마을교육공동체 모두가 청양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신 기자

부여교육지원청, 제31대 백명호 교육장 취임

“코로나 시대의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부여교육지원청은 제31대 백명호 교육장이 3월 1일 자로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백 교육장은 새 학기 시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여초등학교에서 오미크론 대응 학교 현장 지원 활동을 시작으로 부여에서의 첫 일정을 알렸다.

백명호 교육장은 부여군 출신으로 공주대와 공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9년 한산종합고(현 충남

디자인예술고)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고, 부여고, 부여여고 등에서 교직생활을 이어갔다. 그 후 장학사(청양·공주교육지원청, 교원인사과), 종남과학교, 천안중학교 교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교육청 감사관 정령윤리팀장을 역임하고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 인사팀장을 거쳐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백 교육장은 풍부한 학교 현장 경

험과 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부여교육 발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여에서의 교직생활과 교육과장으로서의 경험으로 현장 중심의 부여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 교육가족들은 기대하고 있다.

백명호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지원과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민준 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36대 정원만 교육장 취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36대 정원만(만50세) 교육장이 3월 1일 취임했다.

정원만 교육장은 태안 출신으로 안면고등학교와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 교직에 입문해 논산반월초등학교 교감, 논산동성초등학교 교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원만 교육장은 “학교 교육이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귀 기울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자철 기자

